

나랑 친구 하자!

통합교과 봄 #나 #친구

피터 브라운 글 · 그림 | 서애경 옮김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친구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1-2학년, 유치

관련 주제어 나, 친구

교육 과정 연계 통합교과 봄

[2של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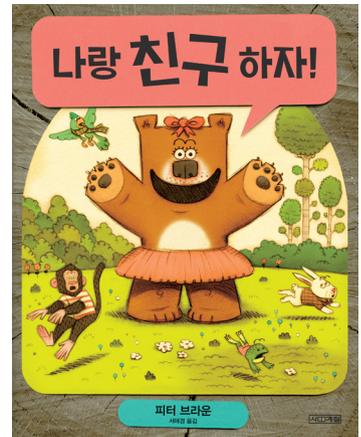
[2즐01-02]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한다.

국어

[2국01-01]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1-03]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 도서 소개

루시는 오늘 새 친구를 사귀기로 마음먹습니다. 숲속에는 재미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사귀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루시는 마음이 잘 맞는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친구 맺기'에 대해 경쾌하게 귀땀해 주는 그림책입니다.

■ 학습 목표

- 루시의 행동을 보고 왜 루시가 새 친구를 사귀기 어려웠는지 말할 수 있다.
-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인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 서로 다른 루시와 홍학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지 말할 수 있다.
- 좋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봄 학기가 되면, 아이들은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하지?’, ‘먼저 뭐라고 말을 하지?’, ‘아무도 나랑 놀지 않으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가득 안고 교실로 들어선다. 특히 이제 막 입학해서 친구 사귀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잘 맞는 친구를 사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른다.

이 책의 주인공 루시가 친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떻게 친구에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있다. 루시 처럼 무작정 친구를 찾아 나서면 오히려 친구를 도망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친구를 어떻게 잘 대해야 할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루시가 실망하고 있을 때 루시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친구가 나타났듯이, 미처 몰랐던 고마운 친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한다.

수업 준비물 모양 포스트잇, 곰인형이나 곰탈, 색종이, 가위, 작은 편지지, 도화지, 편지, 실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책 읽기 전	표지 살펴보기 -루시와 주변 친구들 탐색하기 -앞면지와 뒷면지, 앞표지와 뒤표지 다른 부분 찾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1차시
책 읽으면서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것 -포스트잇에 써서 분류하기 뭐가 잘못된 거지? -루시에게 말해 주기 년 할 수 있어. -루시에게 격려의 메시지 보내기	2차시
책 읽은 후	홍학과 루시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홍학이 뭐라고 했을까? -홍학과 루시의 닮은 점 찾기	1차시
	친구 사이 정의하기 -‘친구는 ○○○이다’ -친구에게 마음 전하기	1차시

책 읽기 전

1. 『나랑 친구 하자!』 표지 살펴보기

- 표지를 보면서 루시가 어떤 아이인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칠판에 모두 적어 보자. 칠판에 루시를 크게 그리거나 ‘루시’라고 이름을 크게 적어 두고 시작하면 더 좋겠다.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간단한 단서들을 말해 본다. 예를 들어, 루시의 모습을 보고 “루시는 꿈이다.”, “루시는 여자인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다. 큰 그림과 큰 글자를 보고 “루시는 목소리가 크다.”, “루시는 씩씩하다.”, “루시는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라고 할 수도 있다. 표지에서 처음 만나는 루시라는 캐릭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루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친구를 이해할 때도 필요한 자세이다.
- 루시를 피해 달아나는 주변 동물들을 보면서 또 다른 정보를 생각할 수도 있다.
- 이렇게 탐색해 본 ‘루시’와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친구하고 싶다면 왜 친해지고 싶은지, 안 하고 싶다면 또 왜 친구하기 싫은지 물어보며, 친구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선생님께 아이들이 발표하는 루시의 특징을 선생님이 바로바로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두거나 말풍선 안에 적어 주세요.

2. 달라진 그림 찾기

- 앞면지와 뒷면지를 비교해 보고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 루시의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찍혀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 앞표지와 뒷표지를 비교해 보고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 새 발자국의 주인공이 홍학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 루시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을까 되물어보고 모둠별 또는 개별로 루시의 비결을 상상하게 해 보자. 학습의 분위기에 따라 루시가 친구 사귀는 법을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책 읽으면서

1.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것

- 루시가 의기양양하게 친구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서는 장면까지 함께 읽은 뒤, 루시가 친구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지 물어보자. 루시는 그냥 숲에만 가면 자기랑 친구하고 싶은 아이가 있을 거라 믿는다. 친구를 사귄 준비보다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순수한 마음만 가득하다.

- 루시가 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아이들에게도 친구가 생기면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 발표 내용을 포스트잇에 한 가지씩 적어 보자. 여러 가지를 적되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씩만 적고 이름도 적어 준다.
- 각자 적은 것을 붙여 보고 하고 싶은 것이 똑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자. 친구와 하고 싶은 것이 서로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2. 뭐가 잘못된 거지?

- 개구리에서부터 새알까지의 친구 찾기를 함께 읽고 루시가 만난 동물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오늘 수업에 루시를 초대했다고 알리면서 루시를 교실에 등장시킨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직접 곰탈을 쓰거나 루시라고 쓴 머리띠를 둘러도 좋습니다.

- 루시에게 뭐가 잘못되었는지 좀 알려 달라고 한다. 다만, 루시는 친구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프니 다정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 “개구리 연못은 너무 작운데 네가 그냥 풍덩 하고 들어가니까 개구리는 자기네 연못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할거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루시 역할이 “아, 그렇구나. 난 그냥 같이 수영하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작았구나. 개구리들이 깜짝 놀랐겠다.” 하고 대답해 준다.
- 아이들의 반응이 없으면 먼저 물어본다. “나는 스핑크스는 왜 나랑 친구 하지 않아? 난 스핑크스한테 잘해 주려고 씻어 주기도 했는데.”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아이들의 대답을 유도할 수 있다.
- 루시가 새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 ‘무작정 다가가기 → 상대방 배려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 억지로 친구에게 맞추기 → 아예 친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 심술부리기’ 아이들의 대화에서 루시가 자기 이해와 배려심이 없었음을 이끌어 보자.
- 아이들의 조언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면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알 것 같아.”라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 “그런데 내가 정말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모두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퇴장한다.

3. ‘넌 할 수 있어’ 하트 날리기

- 루시가 걱정이 많으니까 루시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 주기로 한다.
- 하트 모양으로 자른 색종이에 힘내라는 말과 함께 다른 좋은 방법을 적는다. 그리고 칠판에 루시에게 보내는 공간을 만들어 붙여 보자.

책 읽은 후

1. 홍학과 루시는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

- 홍학이 언제 루시를 처음 보았는지 다시 책을 살펴보자.

선생님께 색안경을 쓰고 루시를 바라보는 홍학 무리와 색안경을 쓰지 않는 친구 홍학의 차이점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세요.

- 홍학이 다가가는 모습과 루시가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나눠 보자.
- 홍학이 한 말은 과연 무엇일지 의논해 보자. 말풍선 모양 종이에 적어 본다.
- 말풍선을 칠판에 붙여 두고 함께 읽어 본다.

2. 홍학과 루시는 닮은 점 찾기

- 홍학과 루시가 함께 노는 장면을 다시 보면서, 둘은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찾아본다.
- 무엇이 닮았는지 정확하지 않으니 그림을 보고 짐작해 본다. 예를 들어, “홍학의 깃털 색깔과 루시의 치마 색깔이 같다.”, “색은 다르지만 리본을 매고 있는 것이 같다.”, “방법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것이 비슷하다.” 등을 말할 수 있다.
- 루시와 홍학처럼 겉모습이 완전히 달라도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며, 친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추거나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음을 이끌어 준다.

3. 친구 사이 정의하기

- 뒤표지에 있는 글귀 ‘친구 사이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을 함께 읽고 친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줄로 써 보자.
- 큰 도화지를 주고 각자 다양한 모양의 카드로 오려 보도록 한다. 글자를 크게 쓸 수 있게 도와주고 함께 읽는다. 다 쓴 종이는 가랜더처럼 엮어서 교실에 걸어 둔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사자가 아기를 만났어 김새별 글·그림

세상에 아무도 없는 듯, 언제나 혼자였던 사자에게 누군가 인사를 건넵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아기를 만난 사자는 반가운 손짓에도 깜짝 놀라고 말지요. 어흥! 우렁찬 사자의 소리에도 숨거나 달아나지 않고 오히려 짧은 팔과 다리로 사자를 귀엽게 따라하는 아기. 조금씩 가까워지는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모습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놀이 #친구



이파라파나무나무 이지은 글·그림

평화로운 마시멜롱 마을에 어느 날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파라파나무나무!” 소리의 정체는 산만 한 덩치에 시커먼 털송송이. 이쯤 되면 제아무리 느긋한 마시멜롱들도 가만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나무? 남남? 우릴 잡아먹겠다는 말이야!” 말 한마디가 일으킨 오해, 낯선 침입자를 둘러싼 해프닝을 유머러스하게 그려 냈습니다. 우스운 일면, 은연 중에 ‘다름’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전하는 그림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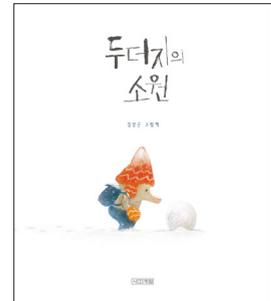
#자기표현 #친구



두더지의 소원 김상근 글·그림

첫눈이 온 날, 낯선 동네에 이사를 와서 친구가 없던 두더지는 눈덩이를 만나 친구가 됩니다. 눈덩이와 함께 집으로 가며 조근조근 이야기를 펼쳐 놓습니다. 함께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모두들 눈덩이는 태울 수 없다고 합니다. 두더지는 친구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맑은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에 미소 짓게 됩니다.

#친구 #관계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글·그림

눈이 펄펄 오는 날, 고민에 빠진 두더지는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면 눈덩이를 굴러 보렴.’ 하고 할머니가 해 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두더지의 고민은 바로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덩이는 굴릴수록 점점 커져가고, 고민도 점점 커져만 가지요. 걱정 많은 아이들을 다독여 주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림책입니다.

#놀이 #친구



■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레오, 나의 유령 친구 맥 바넷 글 |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 | 서애경 옮김

레오는 오랫동안 변두리에 있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유령입니다. 우연히 자신을 알아보는 소녀 제인을 만나는데, 제인은 레오를 자신의 '상상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유령 소년과 상상력 넘치는 소녀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펼치는 따뜻한 우정 이야기를 그린 그림책입니다.

#놀이 #친구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글·그림 | 서애경 옮김

바비는 수업 시간에 종이비행기 날리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입니다. 바비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장난칠 때마다 바비를 혼내는 커비 선생님이지요. 바비 눈에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몬스터처럼 보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바비와 커비 선생님은 우연히 공원에서 마주치는데, 두 사람은 이 어색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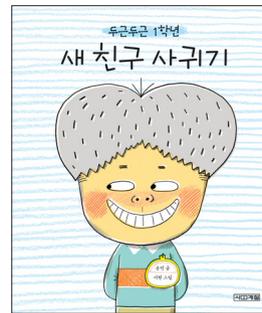
#소통 #관계



두근두근 1학년 새 친구 사귀기 송언 글 | 서현 그림

도훈이는 선생님을 졸라서 평상시 좋아하던 윤하와 짝이 됩니다. 그런데 장난꾸러기 친구 우찬이가 도훈이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바보야, 여자 친구가 좋다고 남자가 ‘이히히’ 웃으면 밤에 귀신이 나타나.” 도훈이는 윤하가 좋지만 귀신은 무섭습니다. 도훈이는 어떤 해결책을 찾을까요?

#친구 #자기표현



내가 영웅이라고? 존 블레이크 글 | 악셀 셰플러 그림 | 서애경 옮김

누가 봐도 토끼인 데일리 비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또 어디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족제비가 나타납니다. 데일리 비는 족제비가 뭔지 모르지요. 능청스러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큰 웃음과 함께 유쾌한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나 #친구

